

## 영한 번역에서의 텍스트 구조와 접속 부가어

최진실

(부산대)

### 1. 서론

최근 텍스트의 구조와 접속 부가어(conjunctive adjuncts)<sup>1)</sup>에 관한 단일 언어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영한번역의 관점에서 실제 장르별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미미했다. 각 언어마다 선호하는 텍스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에서 텍스트 구조 변경은 빈번하며, 이로 인해 각 텍스트 구조를 연결하는 접속 부가어의 번역문제가 발생한다.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의 저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수사학적 목적을 인식하고 목표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의 관습에 따라 적절하게 번역해야 하는 번역가에게 이러한 문제는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의는 실제 번역 자료를 바탕으로 텍스트 구조의 측면에서 접속 부가

---

1) Halliday & Mattiessen(2004)의 논의에 따른 것임

어의 영한 번역경향을 살펴보면, 영한번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텍스트 구조변경을 살펴본다. 또한 번역에서 많이 쓰이는 텍스트 구조가 번역문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인지 아니면 목표언어(target language, 이하 TL)의 특성이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안점이다.

논의 대상은 Halliday & Hasan(1976)이 의미기능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접속관계, 즉 부가(additive), 역접(adversative), 원인(causal), 시간(temporal) 관계를 바탕으로, 최진실(2009)의 논의에 따라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and’, ‘moreover’, ‘but’, ‘however’, ‘yet’, ‘so’, ‘thus’, ‘then’만 한정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 텍스트는 소설, 교양, 신문, 연설 장르별로 각각 10개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한 텍스트 당 1,000어절을 기준으로 40,000어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논의한다.

본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의 구조를 살펴보고, 텍스트 구조에 따른 접속 부가어의 번역 문제를 논의하며, 이러한 한국어 번역 텍스트 구조의 특성을 한국어 텍스트 구조의 특성과 연관하여 논의한다.

## 2.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가 단순히 문장들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 입증되었지만,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의견의 합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황미향(8)의 논의에 따르면 텍스트 구조에 대한 논의에는 의미중심으로 의미구조를 연구하는 것과 표면적인 통사 층위나 표지로 텍스트 하위 구성단위를 분석하는 것이 있다. 하티姆 & 메이슨(Hatim & Mason 165)의 논의는 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나 절과 같은 문법단위로 텍스트를 분석하지 않고 텍스트 전체의 수사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요소(element)-연속체(sequence)-텍스트(text)로 텍스트 계층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이들의 논의에서는 단락을 유의미한 단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단락의 경계와 텍스트의 경계가 일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178). 그러나 의미구조 중심의 연구들은 형식의 측면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텍스트 분석에서 객관적인 표지인 들여쓰기나 구두점과 같은 형식적인 측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할리데이 & 하산(Halliday & Hasan 244)의 논의에서도 형식적 지표인 마침표를 근거로 문장 층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마침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구어에서조차 문장의 층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구어에서 문장을 구별하는 표지는 휴지(pause)인데 화자가 문장의 끝에서 휴지를 남김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휴지는 특히 동시통역에서 유용하며, 이태형(125)에 따르면 문장 끝에서 위치하는 휴지는 다음 문장의 시작에 해당되는 위치이므로 입력 중인 문장의 이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음 문장의 입력에 대비하는 데 통역사가 여유를 가지게 한다. 이처럼 발화상황이 전제가 되는 통역에서도 의사소통적 이해를 위해 문장과 문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실증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본 논의에서는 텍스트 구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형식적 지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표나 들여쓰기처럼 형식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텍스트 구조를 분석한 논의에는 룡애커, 황미향, 김미선의 논의가 있다. 각 논의에서 설정한 텍스트 구조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룡애커(311): 어근-단어-구-절-문장-단락-담화
2. 황미향(16): (명제/시제문)-문장-글분절-문단-텍스트
3. 김미선(34): 문장-문장군-문단-텍스트

위에서 보면 각 논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이들 모두 문장, 단락(또는 문단<sup>2)</sup>), 텍스트(또는 담화<sup>3)</sup>)를 구분하며, 차이점은 문장과 단락의 중간 층위인 글분절 또는 문장군을 설정하는가와 문장 보다 작은 층위를 설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글분절이나 문장군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지만 동

2) 문단은 paragraph와 동일하므로, 이후부터 논의의 편의상 ‘단락’으로 통일한다.

3) 담화는 학자들에 따라 텍스트와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황세정(9)에 따르면 담화는 입말이고 텍스트는 글말이다. 그러나 담화와 텍스트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의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에 대한 논의기 때문에 담화와 텍스트를 구별하지 않고 텍스트로 통일한다.

일화제를 구성하는 단위이며 이들의 경계는 화제전환이 일어나는 최소의 단위이다. 한 단락 내에서 여러 문장들이 나타나지만 각 문장들이 구성하는 화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장과 텍스트의 중간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동일화제 단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은 심지어 의미 중심의 논의인 하팀 & 메이슨에서도 나타나는 데 이들은 연속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의도 문장과 단락의 중간단위로 연속체를 설정한다. 한편 본 논의는 문장 층위에서 나타나는 접속 부가어 번역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문장 보다 작은 단위로 절이나 명제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설정하는 텍스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문장-연속체-단락-텍스트

연속체는 동일화제로 구성되며 최소 한 문장이상이고 단락은 최소 하나의 연속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텍스트의 구조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접속 부가어이고, 한국어에서는 ‘이음말(강우원 1991)’ 또는 ‘접속사(강범모 2002)’, ‘접속 부사(김미선 2001)’인데 본 논의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접속 부가어’로 통칭하기로 한다.

텍스트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형식적인 표지와 맥락상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텍스트 구조에서 단락연결은 들어쓰기라는 형식적인 표지로 구분가능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나, 문장연결과 연속체연결은 마침표라는 동일한 형식적인 표지로 나타나서 맥락상의 의미로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팀 & 메이슨(175-6)에서 지적하듯이 화제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인 연속체연결은 한 수사학적 목적이 끝나는 지점으로 본능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한편, 연결어미를 사용한 선행문장으로 대치 가능성으로도 문장연결과 연속체연결을 구별할 수 있는데 연결어미는 하나의 사태를 연결하기 때문이다(황미향 92).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하나의 사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관련성 이론의 측면에서 문장의 진리조건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Chun(182)의 논의에서는 영어 접속 부가어와 한국어 연결어미가 문장의 진리조건성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영어의 접속 부가어는 비진리조건적인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만 갖는 반면, 한국어 연결어미는 진리조건적인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와 비진리조건적인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를 함께 갖는다. 특히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접속 부가어를 비교한 결과, 연결어미는 두 명제를 연결하여 하나의 진리조건적 명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접속 부가어는 두 명제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연결하기 때문에 진리조건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a. Tom은 키가 작지만 John은 키가 크다. (Chun 182)
- b. Tom은 키가 작다. 하지만 John은 키가 크다.
- c. If Tom is short-ciman John is tall then Mary will not marry either of them. (Chun 183)
- d. \*If Tom is short. Haciman John is tall then Mary will not marry either of them.

위의 (1a)는 두 명제를 연결어미로 연결하여 하나의 사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1c)처럼 개념적 의미를 테스트 하는 방법인 ‘if,,,then’의 작용력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1b)는 두 명제를 두 문장으로 나누기 때문에 (1d)처럼 ‘if...then’의 작용력 테스트에 넣을 수 없다. 이런 점은 한국어 접속 부가어와 연결어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수히 많은 명제를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계속 연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장 경계를 나누고 접속 부가어를 사용하는 것은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두 명제를 하나의 사태로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고 접속 부가어를 사용하는 것은 두 명제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명제가 너무 동떨어진 의미를 갖는 경우 하나의 사태로 인식하려는 연결어미를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 (2) a. The first day in the hall of the castle when she had said goodbye she had put up her veil double to her nose to kiss him: and her nose and eyes were red. But he had pretended not to see that she was going to cry.
- a'. 처음 입학하던 날, 이 고성(의 현관)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는 쓰고 있던 베일을 코까지 접어 올리고 그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그때 어머니의 코와 눈을 빨겠다. 그러나 어머니가 울먹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못본척 하려 했다. (소설 24)

- (3) a ...Smith was determined to blow up the corporate model and start over—employing novel techniques from the assembly line to the showroom. The United Auto Workers feared Smith’s vision would translate into more robots and fewer workers. **But** Smith found an unlikely partner in Donald Ephlin, the portly and disheveled head of the UAW’s GM department...

a'. 스미스는 기존모델을 타파하고 조립라인부터 전시장까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작정이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스미스의 구상이 로봇의 증가와 근로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원군을 얻었다. UAW의 GM 지부장을 맡고 있던 뚱뚱하고 털털한 옷차림의 도널드 에플린이었다. (신문 1)

위의 (2a)의 ‘But’과 (2a)의 ‘그러나’는 동일화제 내의 문장연결이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의 코와 눈을 빨겠으나 어머니가...’로 선행문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한편 (3a)의 ‘But’과 (3a)의 ‘그러나’는 새로운 기법 도입과 경영 관리 파트너십 체결의 화제전환이 일어나는 연속체연결이기 때문에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선행문장으로 대치하면 의미가 이상하게 된다. 한편 (3a-a)는 한국어 번역에서 발생하는 텍스트 구조변경인데 (3a)는 한 단락의 일부인 반면(‘...’은 앞, 뒤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있다는 뜻) (3a)에서는 한 단락으로 번역되었다. 즉, 원문보다 번역에서 단락 나누기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속체는 위의 (2a)와 같이 여러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최소 구성단위는 한 문장이다(황미향 82-3 참조). 연속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한 개의 문장으로 보는 것은 문장 개수가 한 개라고 할지라도 후행하는 문장들과의 의미관계가 구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4)는 그 예이다.

- (4) ①Populist sentiments have waxed and waned over the decades,

4) 숫자는 편의상 임의적으로 붙인 것이며 분석 텍스트의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란을 참조한다.

peaking during times of economic distress for farmers and workingmen, especially the 1890s and the 1930s. ②Yet by and large most Americans have tried to stay neutral in the war between the classes, particularly in contrast to European countries of comparable wealth. ③What Americans lack is what the European working classes gleefully exhibit: resentment of the rich personally, as distinct from unhappiness with policies that affect how income and wealth are distributed. (신문 5)

(4)의 ①은 미국 서민들의 부자들에게 대한 반감에 대한 것이고 ②와 ③은 대체적인 미국인들의 부에 대한 정서를 유럽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즉, ①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하나의 연속체를 구성한다.

그런데 (2a-a')처럼 원문과 번역의 텍스트 구조가 동일하기도 하고 (3a-3a')처럼 원문의 텍스트 구조가 번역에서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구조 변경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텍스트 구조에 따른 접속 부가어 번역의 문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의 텍스트 구조가 한국어 번역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달라지는 번역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각 언어마다 선호하는 텍스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번역 텍스트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한국어번역에서는 영어원문보다 문장 개수와 단락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는 텍스트 구조 변경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하탐 & 메이슨(167)에서는 아랍어와 영어의 뉴스보고서에서 선호하는 텍스트 구조가 다른 것을 논의하였는데 텍스트 구조는 언어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텍스트 유형별로도 달라진다. 언어 사용자는 특정한 텍스트 유형의 초점이 되는 수사학적 목적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텍스트 초점은 각 문화가 텍스트 재료를 구성하는 방식을 반영한다(169). 따라서 장르별로 텍스트 초점이 달라지며, 선택적인 요소와 필수적인 요소도 달라지기 때문에 영한번역에서도 장르별 텍스트 구조에 따른 접속 부가어의 번역이 달라진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소설, 신문, 교양, 연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범위는 최진실의 논의에 따라 사용빈도를 중심으로 부가 접속 부가어 ‘and’, ‘moreover’, 역접 접속 부가어 ‘but’, ‘yet’, ‘however’, 원인 접속 부가어 ‘so’, ‘thus’, 시간 접속 부가어 ‘then’에 한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접속 부가어의 분류기준도 최진실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표1> 영어와 한국어의 접속 부가어 분류(최진실 113)

의미기능	영어	한국어(강범모 62)
부가	and, moreover	그리고, 또, 더구나, 하물며, 그러자 등
역접	but, however	그렇지만, 하지만, 허나, 그러나, 그러하나 등
원인	so, thus	그러므로,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서 등

표 1에서 시간 접속 부가어가 없는 것은 영어에서는 시간 접속 부가어를 따로 설정하나 한국어 논의(강범모)에서는 시간 접속 부가어를 설정하지 않고 시간 부사로 분류하기 때문에 범주 간 대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장르별로 1,000어절씩(오차범위  $\pm 15$ ) 10개의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총 40,000어절을 분석하였다<sup>5)</sup>. 그런데 교양텍스트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영한 대역을 분석하였는데 텍스트 구조 변경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실제로 텍스트 구조 변경이 나타난 텍스트는 소설, 신문, 연설 텍스트이며, 이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조에 따른 접속 부가어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자.

영어 ST의 문장연결, 연속체연결, 단락연결이 한국어 TT에서 바뀌는 모든 경우의 수는 9가지이다. 그 중에서 ST-TT의 연속체연결-절연결, 단락연결-절연결은 나타나지 않는데 ST에서 연속체를 연결하는 접속 부가어는 의미가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사태를 연결하는데 이를 한 가지 사태를 연결하는 연결어미로 번역할 경우 의미가 이상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단락 내에서 일어나는 구조변경인 문장연결-연속체연결, 연속체연결-문장연결은 표면적인 표지로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의는 형식적인 표지인 마침표와 단락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조변경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마침표와 단락의 경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조변경은 ST-TT의 문

5)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란을 참조하기 바란다.



장연결-절연결, 문장연결-단락연결, 연속체연결-단락연결, 단락연결-문장연결, 단락연결-연속체연결이다. 즉, 한국어에서 연결어미가 많이 사용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장연결-절연결의 문체와 영어와 한국어의 단락화 특성이 다른데서 비롯되는 문제로 대별된다. 먼저 문장연결이 절연결로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 연속체 안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가어의 경우, 동일화체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연결어미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는 예(2)와 (3)에서 밝힌 바 있다. 실제 텍스트에서 문장연결이 절연결로 바뀐 경우는 전체 37개 중에서 11개이며, 29.7%를 차지하였다. 장르별 빈도수는 소설<신문<연설 순으로 높았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와 한국어 단락화의 차이인데, 먼저 ST의 문장연결이 TT에서 단락연결로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자.

- (5) a. ①He also sees government intervention as vital to channel animal spirits and innovation. ②And where innovation is most needed now is in real estate and for the individual homeowner.  
 a'. ....①그는 또 ‘아수적 충동’과 혁신을 다스리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②그리고 지금 혁신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부동산이며, 이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문 7)

(5a)에서 ①은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②는 부동산 분야에서 정부개입이 가장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문장①과 ②를 연결하는 ‘And’는 앞문장의 내용을 부가, 심화시키는 접속 부가어로 동일화제안의 문장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장연결은 (5a)에서 단락연결로 바뀌었다. 실제 분석에서는 총 37개 중에 7개가 해당되었으며, 18.9%를 차지했다. 장르별 빈도수는 연설<신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설에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ST의 연속체연결이 TT에서 단락연결로 바뀌는 경우를 살펴본다.

- (6) a. ①That’s the journey we’re on today. ②But let me tell you how I came here. ③As most of you know, I am not a native of this great state. ④I moved to Illinois over two decades ago....  
 a'. ....①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②저는 오

6) ‘//’는 단락의 경계를 나타냄

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㉔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훌륭한 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㉕저는 20년 전에 이곳 일리노이주로 옮겨왔습니다.... (연설 1)

(6a)의 ㉑은 앞 단락의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써 ㉒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구별된다. 따라서 ‘But’은 (6a)에서 연속체연결인데 이것이 (6a')에서 생략되어 단락연결로 바뀌었다. 즉, ST에서는 한 단락 내의 내용이 TT에서는 두 개의 단락에서 나타나는 데 이는 영어보다 한국어에서 단락화를 더 많이 시키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분석에서 연속체연결이 단락연결로 바뀐 경우는 전체 37개 중에 13개로 가장 높은 빈도인 35.1%를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문장연결이 단락연결로 바뀐 것과 합하면 54%가 단락연결로 바뀐 것이다. 이는 영어원문보다 한국어번역에서 더 짧은 단락을 선호하여 단락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반영한다.

그 다음으로 ST의 단락연결이 TT에서 문장연결과 연속체연결로 바뀌는 경우를 살펴볼 것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문장연결-단락연결, 연속체연결-단락연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어번역에서 짧은 단락을 선호하여 단락개수가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ST의 단락연결이 TT에서 문장연결로 바뀌는 경우를 살펴본다.

- (7) a. ㉑In this country, it is education that allows our children to hope for something else. //㉒And as the 21st Century unfolds, we are called once again to make real this hope-to meet the new challenges of a global economy by carrying forth the ideals of progress and opportunity through public education in America.
- a. ㉑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무엇을 바라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㉒21세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공교육을 통해 전진과 기회의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체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기 위해 한 번 더 이 희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연설 10)

(7a)의 ‘And’는 단락연결이지만 (7a')에서 생략되었는데 앞 문장의 핵심 주제인 ‘교육’을 뒷 문장에서 심화시켰기 때문에 동일화제인 문장연결이다. 이런 경우

는 실제분석의 10.8%이고, 장르별 빈도수는 연설=신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T의 단락연결이 TT에서 연속체연결로 바뀐 경우를 살펴본다.

(8) a. ...①In the next few weeks,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be deciding whether to file a large suit in the WTO against China’s subsidization of exports, potentially upping global trade tensions by orders of magnitude. //②But the most dangerous trade conflicts may stem not from wrangling over traditional subsidies or tariffs, but from the new fiscal stimulus plans being launched around the world to counter the economic downturn.

a'. ...①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몇 주 사이에 수출 보조금 문제로 중국을 WTO에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세계적으로 무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③그러나 가장 위험한 무역전쟁은 전통적인 보조금이나 관세를 둘러싼 갈등보다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촉발될지 모른다. (신문 6)

(8a)의 ‘But’은 단락연결인데 (8a')에서는 단락중간의 연속체연결로 나타났다. ①과②은 수출금 보조문제로 인한 무역긴장에 대한 내용인 반면, ③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무역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므로 화제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연속체연결을 나타낸다. 실제분석에서 이런 경우는 5%로 나타났는데 신문과 연설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르별 번역에서 텍스트 구조 변경이 나타난 경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장르별 텍스트 구조 변경

	뉴스	소설	연설	전체
구조동일	32	56	53	141
문장연결-절연결	2(18.2%)	1(9.1%)	8(72.7%)	11
문장연결-단락연결	5(71.4%)	0(0.0%)	2(28.6%)	7
연속체연결-단락연결	7(53.8%)	1(7.7%)	5(38.5%)	13
단락연결-문장연결	2(50.0%)	0(0.0%)	2(50.0%)	4
단락연결-연속체연결	1(50.0%)	1(50.0%)	0(0.0%)	2
전체	49	59	70	178

먼저 장르별로 살펴보면, 연결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장르순은 연설(70개)-소설(59개)-신문(49개)인데, 구조변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르순은 신문(17개)-연설(17개)-소설(3개)이다. 소설에서 구조 변경이 일어난 비율은 5.0%로 가장 미미했다. Munday(73)에서 제시한 Reiss의 텍스트 유형을 살펴보면 소설은 표현적 텍스트로 원문 저자의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문의 텍스트 구조를 번역문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문과 연설은 각각 정보적 텍스트와 호소적 텍스트에 해당되는데 Reiss는 정보적 텍스트의 번역 방법으로 필요하면 설명을 더하여 알기 쉬운 산문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고, 호소적 텍스트는 등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개작을 번역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신문과 연설의 텍스트 성격에 따른 번역방법을 선택하면 TT 독자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TL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

한편 세부적인 텍스트 구조 변경을 살펴보면 문장연결이 절연결로 바뀌는 것은 한국어에서 연결어미가 발달한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TL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문장연결과 연속체연결이 TT에서 단락연결로 바뀐 빈도가 높은 것(20개)은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짧은 단락을 선호하는 경향과 연관된다. 이는 원문의 단락연결이 문장연결과 연속체연결로 바뀌는 빈도가 낮은 것(6개)과 상관있다. 이렇게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짧은 단락을 선호하는 경향은 문장-연속체-단락-텍스트의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용과 가독성을 중시하는 신문과 TT의 관습을 중시하는 연설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은 원래부터 한국어로 쓰인 텍스트가 짧은 단락을 선호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특히 한국어번역에서 선호하는 텍스트 구조가 번역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한국어 본연의 특성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4. 한국어 텍스트 구조와 한국어번역 텍스트 구조의 특성

번역문이 원래부터 TL로 쓰여진 비번역본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Laviosa-Braithwaite(1995)는 단순화(simplification), 명시화(explicitation), 표준화(normalisation), 구체화 가설을 번역의 보편적 특징으로

설정했다(박기성 역 2009: 244). 그 중에 접속 부가어의 번역과 연관되는 것은 명시화 가설과 표준화 가설인데 명시화 가설은 번역본들이 번역되지 않은 TT보다 더 명시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표준화 가설은 TL의 전형적인 특징이 번역에서 과장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ST의 문맥적 관계는 TL의 습관적 특징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이러한 번역문의 특성을 전제로 한 최진실(121)의 논의에 따르면 원문에 비해 특히 연설번역에서 원인 접속 부가어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연설에서 원인 접속 부가어가 자주 쓰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표준화가설에 부합되는 결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텍스트 구조에 따른 접속 부가어 번역에서도 이러한 번역의 보편적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장의 주안점이다. 이를 위해 3장에서 특히 텍스트 구조변경이 많이 나타난 신문, 연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원문, 원래부터 TL로 쓰여진 텍스트와 TL로 번역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신문과 연설 텍스트에서 나타난 문장연결, 연속체연결, 단락연결의 비율을 먼저 살펴보고, 각 연결구조별 나타나는 접속 부가어의 빈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각 텍스트 구조별 나타나는 접속 부가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p < 0.05$ )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다<sup>7)</sup>. 먼저 신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연결구조의 비율부터 살펴본다.

<표3> 신문텍스트의 원문, 번역문, 비번역문 별 연결구조 비교(각 10,000어절 기준)

	단락연결	문장연결	연속체연결	전체
원문	7(14.3%)	27(55.1%)	15(30.6%)	49
번역문	29(29.0%)	54(54.0%)	17(17.0%)	100
비번역문	23(26.4%)	40(46.0%)	24(27.6%)	87

위의 표에서 먼저 원문과 번역문을 살펴보면, 문장 연결의 비율은 비슷하나, 연속체연결과 단락연결이 달라진다. 특히 번역문에서 연속체연결은 원문보다 줄어들고, 단락연결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표2에서 연속체연결이 단락연결로

7) 통계적 유의미성은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번역에서 텍스트 구조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 원인으로 원문이나 비번역문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통계적 기법으로 설명한다.

빈번히 바뀌는 양상을 반영한다. 이를 비번역문의 단락연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번역문에서도 단락연결이 많이 나타나므로(26.4%) 목표언어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문에서 특이한 점은 영어 원문은 한 단락 내 문장 개수가 5개인 단락이 자주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 번역문이나 비번역문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 문장이 단락을 이루며, 간혹 한 단락에서 4개 문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5개 문장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한국어에서 짧은 단락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원문에서 한 연속체 안의 내용이더라도 번역문에서 단락화시키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1,000어절 기준으로 10개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영어원문 단락수 평균은 8.4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번역문의 단락수 평균은 17.5로 번역문이 원문보다 단락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접속 부가어 연결의 총합을 비교해 보면, 비번역문은 87개이고 번역문은 100개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13%정도 접속 부가어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시화가설에 부합되는 것으로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서 문장 간 의미관계를 더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한편 원문, 번역문, 비번역문의 신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연결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신문 텍스트의 각 연결구조별 나타난 접속 부가어를 살펴본다.

<표4> 신문 텍스트의 문장연결 접속 부가어 빈도

	부가	시간	역접	원인	기타 <sup>8)</sup>	전체
원문	10	1	14	2	0	27
	37.0%	3.7%	5.19%	7.4%	0.0%	
번역문	11	0	37	5	1	54
	20.4%	0.0%	68.5%	9.3%	1.9%	
비번역문	8	0	23	8	1	40
	20.0%	0.0%	57.5%	20.0%	2.5%	

문장연결에서는 원문, 번역문, 비번역문 모두 역접 접속 부가어의 빈도가 높은

8) 기타에는 접속 부가어의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의미가 부가/역접/원인/시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그 후’와 ‘그렇게 하면’ 등이 속한다.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의 부가 접속 부가어가 37.0%인 반면, 번역문은 20.4%인 것은 부가 의미관계는 맥락상 유추가 용이하므로 번역에서 생략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진실(114-5)의 논의에서 의미별 접속 부가어의 번역양상을 알아본 결과 다른 접속 관계보다 부가 접속 관계에서 생략되는 비율이 높은 결과와 부합한다. 접속 부가어의 의미별로 인지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전문기 외(2001)의 논의에 따르면 부가 접속 관계는 명시하여도 읽기 속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원인 접속은 명시할 경우, 읽기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93). 또한 논항의 단순 반복에 비해서 논항간의 대비적, 인과적 응집성이 단어의 회상율과 읽기속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288)을 고려해 볼 때 번역가들은 무의식적으로 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접과 원인 접속사를 명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또한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원인 접속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TL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원문의 시간 접속사는 ‘Then’이 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에서는 시간 접속 부가어를 따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시간 접속 부가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문의 연속체연결에서 나타난 접속 부가어 빈도를 살펴본다.

<표5> 신문 텍스트의 연속체연결 접속 부가어 빈도

	부가	역접	원인	기타	전체
원문	2	13	0	0	15
	13.3%	86.7%	0.0%	0.0%	
번역문	1	15	0	1	17
	5.9%	88.2%	0.0%	5.9%	
비번역문	7	16	1	0	24
	29.2%	66.7%	4.2%	0.0%	

연속체연결도 문장 연결과 마찬가지로 모두 역접 접속 부가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비번역문에서는 다른 텍스트보다 부가 접속 부가어의 비율이

9) ‘Then’은 번역에서 강범모의 논의에서 부가 접속 부가어인 ‘그러자’, ‘그리고’로 번역되거나 시간부사구인 ‘그 후’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었다.

높았는데 한국어 신문 텍스트에서 연속체연결에 부가 접속 부가어가 많이 쓰이는 경향을 반영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신문의 단락연결에서 나타난 접속 부가어의 빈도를 살펴본다.

<표6> 신문 텍스트의 단락연결 접속 부가어 빈도

	부가	역접	원인	기타	전체
원문	1	6	0	0	7
	14.3%	85.7%	0.0%	0.0%	
번역문	7	20	1	1	29
	24.1%	69.0%	3.4%	3.4%	
비번역문	5	15	3	0	23
	21.7%	65.2%	13.0%	0.0%	

단락연결도 역접 접속 부가어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원문과 대조적으로 번역문에서 부가 접속 부가어의 비율이 높은 것은 비번역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므로 한국어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설 텍스트에서 나타난 연결구조의 비율을 살펴본다.

<표7> 연설 텍스트의 원문, 번역문, 비번역문 별 연결구조 비교(각 10,000어절 기준)

	단락연결	문장연결	연속체연결	전체
원문	20(28.6%)	36(51.4%)	14(20.0%)	70
번역문	40(40.8%)	49(50.0%)	9(9.2%)	98
비번역문	48(64.0%)	22(29.3%)	5(6.7%)	75

연설 텍스트도 신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원문 대비 번역문의 문장연결은 비슷하나, 연속체연결과 단락연결이 달라진다. 이것도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한번역에서 연속체연결이 단락연결로 자주 바뀌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비번역문에서 단락연결이 64%로 나타나는 점인데 이러한 경향이 번역에도 반영되어 번역문에서 단락연결이 원문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표준화가설에 부합된다. 또한 접속 부가어의 사용빈도는 비번역문 75개, 번역문 98개로 신문과 마찬가지로 번역문의 접속 부가어 사용빈



도가 높았는데 이는 명시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원문 대 번역문에서는  $p=0.074(p>0.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원문 대 비번역문과 번역문 대 비번역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었는데 이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쓰이는 접속 부가어의 구조 별 연결이 영어 원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연설 텍스트의 연결구조별 접속 부가어의 빈도를 살펴본다.

<표8> 연설 텍스트의 문장연결 접속 부가어 빈도

	부가	역접	원인	기타	전체
원문	25	10	1	0	36
	69.4%	27.8%	2.8%	0.0%	
번역문	22	16	9	2	49
	44.9%	32.7%	18.4%	4.1%	
비번역문	8	3	11	0	22
	36.4%	13.6%	50.0%	0.0%	

연설 텍스트의 문장연결에서도 원문 대비 번역문의 부가 접속 비율은 낮아지고, 역접과 원인 접속 비율은 높아졌다. 인지적으로 역접과 원인 접속이 텍스트 이해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번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번역문의 원인 접속 부가어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이한 데, 한국어 연설문의 문장연결에서 원인 접속 부가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번역에도 반영되어 원문의 원인 접속 부가어 비율은 2.8%이지만 번역문에서 20% 가량 차지하였다. 이는 특히 연설번역에서 TL의 성격이 반영되어 원인 접속 부가어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최진실(121)의 논의에도 부합되는 결과이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원문 대 번역문은  $p=0.042$ 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었고, 원문 대 비번역문은  $p=0.000$ 으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번역문 대 비번역문도  $p=0.035$ 로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는 영어와 한국어의 연설 텍스트의 문장 연결에서 나타나는 접속 부가어의 의미별 빈도가 기본적으로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번역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연설 텍스트와 다른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설 텍스트의 연속체연결 접속 부가어의 빈도를 살펴본다.

<표9> 연설 텍스트의 연속체연결 접속 부가어 빈도

	부가	역접	원인	기타	전체
원문	9	5	0	0	14
	64.3%	35.7%	0.0%	0.0%	
번역문	3	4	1	1	9
	33.3%	44.4%	11.1%	11.1%	
비번역문	0	5	0	0	5
	0.0%	100.0%	0.0%	0.0%	

연속체연결을 보면, 원문은 부가 접속 부가어의 비율이 높은 반면(64.3%), 번역문에서는 부가 접속 부가어의 비율(33.3%)로 낮아지고, 역접 접속 부가어의 빈도가 높아졌다.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원문 대 비번역문만  $p=0.013$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원문과 번역문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연설의 연속체연결을 나타내는 접속 부가어는 원문과 번역문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연설의 단락연결에서 나타난 접속 부가어의 의미별 빈도를 살펴본다.

<표10> 연설 텍스트의 단락연결 접속 부가어 빈도

	부가	시간	역접	원인	기타	전체
원문	10	1	7	2	0	20
	50.0%	5.0%	35.0%	10.0%	0.0%	
번역문	13	0	23	3	1	40
	32.5%	0.0%	57.5%	7.5%	2.5%	
비번역문	21	0	21	5	1	48
	43.8%	0.0%	43.8%	10.4%	2.1%	

단락연결에서도 번역문에서 원문 대비 부가 접속 보다 역접 접속을 더 명시하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특히 번역문과 비번역문의 역접 접속 부가어의 비율이 원문 대비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소설을 분석대상으로 한 김미선(39)의 논의에 따르면 ‘그러나’, ‘그런데’ 등의 역접 접속 부가어가 단락연결에 주로 쓰인다고 하는데, 표 6와 표 10의 결과로 보아, 이러한 한국어의 습관은 소설뿐만 아니라

신문, 연설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동시에 이런 TL의 성격은 번역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 5. 결론

지금까지 실제 장르별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 구조에 따른 접속 부가어의 영한번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텍스트의 구조를 통사 층위와 형식적인 표지를 고려하여 문장-연속체-단락-텍스트로 설정하고 이러한 텍스트 구조의 측면이 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가 발달되어 영어의 문장 간 연결이 번역에서 절 연결로 바뀌는 경향이 빈번하고, 영어보다 한국어에서 짧은 단락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ST의 문장연결, 연속체연결이 TT에서 단락연결로 바뀌는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4장에서는 번역의 보편적 특징을 바탕으로 3장에서 텍스트 구조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 신문과 연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원문, 번역문, 비번역문의 연결구조 비율과 각 구조별 접속 부가어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문과 연설 텍스트 모두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서 접속 부가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이 더 명시화된다는 명시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였다. 또한 신문과 연설의 원문 대비 번역문의 문장연결은 비슷하나, 연속체연결과 단락연결이 달라졌다. 이는 영한번역에서 연속체연결이 단락연결로 자주 바뀌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며, 비번역문의 단락연결 비율로 보아, 한국어에서 단락연결이 빈번히 일어나는 성격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였다. 신문과 연설에서 원문 대비 번역문에서 부가 접속 비율은 낮아지고 역접과 원인 접속 비율이 높아진 것은 역접과 원인 접속이 텍스트 이해에 촉진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연관되는데 번역기는 무의식적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접과 원인 접속을 명시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번역문에서 구조변경이 발생하고, 구조 별 자주 사용되는 접속 부가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의미적인 차이를 드러낸 것은 연설 번역문에서 나타난

문장연결로 번역문에서 문장연결로 사용되는 접속 부가어의 종류는 원문과 비번역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비록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적인 차이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원문 대비 번역문에서 텍스트 구조변경이 일어나고 구조 별 사용되는 접속 부가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논의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범모 (2002)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우원 (1991) 『우리말 이음구조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미선 (2001)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기성 율김 (2009) 『대조 언어학과 번역학의 코퍼스기반 방법론 연구』, 서울: 도서출판 동인. (Sylviane Granger, Jacques Lerot, Stephanie Petch-Tyson (eds) (2003) *Corpus-based Approaches to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dopi Press).
- 이태형 (1999) 「영한 동시통역에 있어서의 휴지 연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1): 123-144.
- 전문기, 이정모, 이재호 (2001) 「문장 간의 인과성 및 인과적 접속사의 출현여부가 글 이해에 미치는 영향」, 『실험 및 인지』 13(4): 287-305.
- 최진실 (2009) 「접속 부가어의 영한 번역 연구」, 『언어학』 55: 109-129.
- 황미향 (1999) 『한국어 텍스트의 계층구조와 결속표지의 기능연구』,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황세정 (2007)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성에 따른 번역 방법 연구』,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Chun, Chong-Hoon (2007) *Towards a Theory of Morphopragmatics of Korean Connectives*, Seoul: Pagijoun Press.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and Ruqaiya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Halliday, Michael and Christian Matties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Hodder Arnold.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Longacre, Robert (1996) *The Grammar of Discourse*, New York: Plenum Press, 2nd edition.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 번역 분석 텍스트

<소설>

번호	작가/번역가	연도	제목	출판사
1	Rowling, J.K.	1998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Scholastic Inc
	김혜원 옮김	1999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문학수첩
2	Joyce, J.	2000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Oxford Univ. Press
	이상욱 옮김	2006	젊은 예술가의 초상	민음사
3	Tolkein, J.R.R	2002	The Lord of the Rings 1	Houghton Mifflin Co.
	김번 외 옮김	2007	반지의 제왕 1	씨앗을 뿌리는 사람
4	Austin, J.	2005	Pride and Prejudice	Penguin
	황중호 옮김	1997	오만과 편견	하서 출판사
5	Weisberger, L	2003	The Devil Wears Prada	Anchor Books
	서남희 옮김	2006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	문학동네
6	Lawrence, D	1999	Sons and Lovers	The Modern Library
	정상준 옮김	2002	아들과 연인 1	민음사
7	Steinbeck, J	2002	East of Eden	Penguin Books
	정희성 옮김	2008	에덴의 동쪽 1	민음사
8	Meyer, S	2006	Twilight	Little Brown & Co.
	변용란 옮김	2008	트와일라잇	북폴리오
9	Fitzgerald, S	1998	The Great Gatsby	Oxford Univ. Press
	김옥동 옮김	2003	위대한 개츠비	민음사
10	McCarthy, C	2006	The Road	Vintage Books
	정영목 옮김	2008	로드	문학동네

<교양> - 리더스 다이제스트 영한 대역 97집, 100집, 101집, 102집

번호	작가	제목	번역제목
1	Marc Lerner	Benny cheung's Greatest Rescue	딸의 눈을 살리기 위해
2	Jonneke Krans	The Orchestra with One Violin!	바이올린이 하나뿐인 오케스트라
3	Tim Bouquet	Trapped by the Savage Sea	성난 파도에 휩쓸리다
4	Louise Mills	Trapped in a Frozen Tomb	흙더미 속의 사투
5	Floyd Whaley	Dust of life	베트남의 천사
6	Wendy McLellan	Brandon's fight for life	거식증 아들을 살려낸 부모
7	Jerry MacDonald	Trainman Peever's Leap of Faith	철도원 피버의 용기
8	Charles W. Magill	The Prairie Kid Who Died for France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바친 캐나다 병사
9	Edwin Kiester Jr. & Sally Valente Kiester	What Moms Need to Know about Sons	사내아이들은 왜 이럴까
10	Lynne Schuyler	Attacked by a Lion	맹수로 돌변한 애완사자

<신문> - Newsweek Business

번호	날짜(연.월.일)	작가	번역가
1	09. 04. 13	Paul Ingrassia	
2	09. 04. 20	Ruchir Sharma	차진우
3	09. 03. 07	Lisa Miller	장병걸
4	09. 03. 02	Hernando De Soto	
5	09. 02. 16	Jerry Adler	
6	09. 02. 09	Jeffrey E. Garten	장병걸
7	09. 01. 19	Zachary Karabell	장병걸
8	08. 12. 22	Daniel Gross	장병걸
9	08. 12. 01	Michael Hirsh & Daniel Gross	차진우
10	08. 11. 10	Robert J. Samuelson	차진우

<연설>

번호	연설제목	번역가	연도	책제목	출판사
1	오바마 대통령 입후보 연설	이나경	2008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홍익 출판사
2	오바마 민주당 전당대회 기조연설	최지영	2008	체인지! 그 담대한 희망 오바마論	늘봄

3	오바마 세계 에이즈의 날 연설	이나경	2008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홍익 출판사
4	오바마 시카고 세계문제협의회 연설	이나경	2008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홍익 출판사
5	오바마 취임 연설	김태광	2009	미셀처럼 공부하고 오바마처럼 도전하라	흐름출판
6	오바마 투표결과 발표일에 한 연설	이유진, 이영환, 이송훈	2009	오바마 영어 연설문	21세기 북스
7	오바마 베를린 연설	이유진, 이영환, 이송훈	2009	오바마 영어 연설문	21세기 북스
8	루터 킹 Jr.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한은숙	2006	행복한 명작 읽기 50	다락원
9	링컨 첫 번째 대통령 취임사	한은숙	2006	행복한 명작 읽기 50	다락원
10	오바마 2005년 21세기 자녀교육 연설	이나경	2008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홍익 출판사

(2) 한국어 분석 텍스트

장르	번호	날짜	작가	장르	번호	제목
신문: 한글판 뉴스위크 비즈니스	1	09. 02. 04	박성현	연설 이명박 대통령 연설	1	2010년 국정연설
	2	09. 04. 22	박성현, 류지원		2	2010년 예산안 시정연설
	3	09. 04. 29	강태욱		3	APEC Summit 기초연설
	4	09. 04. 29	박성현		4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연설
	5	09. 04. 29	한기홍		5	제64차 UN총회 기초연설
	6	09. 05. 13	강태욱		6	조지워싱턴대학교 연설
	7	09. 05. 13	박성현		7	한-아세안 CEO Summit 기초연설
	8	09. 05. 27	이정명		8	2009년 신년국정연설
	9	09. 05. 27	이정명		9	CFR/KS/AS 공동주최 오찬연설
	10	09. 06. 10	박성현		10	여협창립 50주년 기념식

[Abstract]

## **Text Structure and English to Korean Translation of Conjunctive Adjuncts**

Choi, Jin Sil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reports on a study of text structure and English to Korean translation of conjunctive adjuncts. The main focus of this paper is to illustrate and explain actual text structure modifications of different text types with which most translators face every day, especially with regard to English to Korean translation of conjunctive adjuncts. For this aim, this paper first sets up boundaries of text structure such as sentence-sequence-paragraph-text considering syntactic levels and orthography such as a period and an indentation, and then specifies the common text structure modifications with actual frequencies and percentages from a data analysis. The most frequent modification happens in the genre of news reporting and speech which prioritize TL text norms. As a general news reporting and speech in Korean prefer short paragraphs, this TL convention is reflected in Korean translation texts. This corresponds to one of the translation universals, namely normalization. Chapter 4 argues that the trend to conform TL text convention is prominent rather than to preserve text structure of ST particularly in the genre of news reporting and speech. This trend is distinct from the genre of novel and general texts, Reader's Digest.

▶ Key Words: text structure modification, conjunctive adjuncts, normalization, translation



최진실

부산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diane45@pusan.ac.kr

관심분야: 번역, 코퍼스, 접속 부가어, 언어학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5일